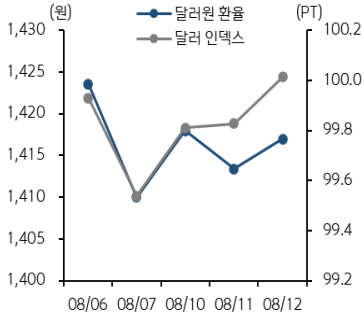


벌써 바닥일까

외환시장



FX Talk : 금일 1,410~1,420원 전망

동향

어제와 그제 달러·원 환율의 상하단 범위는 대동소이했습니다. 상단은 1,420원에 막혔고, 하단은 1,410원에 막혔습니다. 하지만, 일중 흐름은 달랐습니다. 그제는 하락세를 탔지만, 어제는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굳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번 주 환율 하락세가 주춤해졌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 美 CPI 직후의 환율 낙폭도 모두 회복했습니다.

전망

달러·원 환율 하락 모멘텀이 둔화되면서 이번 주 들어 환율이 바닥을 다지는 양상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달러화가 7월 말경의 급락세를 딛고 유로화와 엔화 등 주요 통화 대비 상승하거나 하락을 멈췄습니다. 달러가 그간 하락했기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다고 볼 수 있는데, 급 반등할 상황은 아니지만 하방은 경직된 채 상방을 노크하는 하루를 예상합니다.

FX Insight : 벌써 바닥일까

미국 7월 CPI가 전년비 3.4% 상승해 6월의 3.5%에서 소폭 둔화했고, 근원 CPI도 2.5%로 둔화됐습니다. 에너지가 -1.5%, 휘발유가 -2.9%로 하락했고, 주거비도 0.1% 상승에 그쳤습니다. 반면 일부 서비스·상품 가격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없앤 것은 아니지만, 연준(Fed)이 9월에 서둘러 금리 인상해야 할 당위성은 부족했습니다.

지난 7일 발표된 7월 고용 보고서로 약한 고용이 확인되었음에도 물가가 걱정이었는데, 이번 CPI는 굳이 9월에 연준이 서둘러 움직일 필요가 없음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headline CPI가 3.4%이고 연준이 더 중시하는 core PCE 역시 아직 목표에서 꽤 멀리 떨어져 올해 내내 3%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중동 發 에너지 충격의 후행 효과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9월 FOMC까지 또 한 차례의 고용 및 CPI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황상 8월 인플레이션이 크게 반등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는 과감하고 신속하지만, 금리 인상을 시작할 때는 신중하게 기다리는 비대칭적 행태**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9월 금리 인상의 허들은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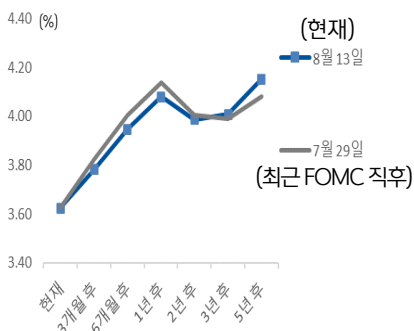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 CPI에 대한 시장 반응은 묘합니다. 결과에 안도하며 초기 반응은 달러화가 하락했지만 그 되돌림 과정에서 CPI 확인 직전 레벨보다 조금 더 높이 올랐습니다. 원화에 대해서도, 유로화, 엔화, 위안화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반응의 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7월 말경 미국과 일본의 공동 외환 개입으로 달러화가 큰 폭 하락한 상황에서 이번 주 들어 달러화가 바닥을 다지는 양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달러화가 엔화 대비로는 뚜렷한 상승세, 유로화 대비 소폭 상승세이고 달러·원 환율도 하락세가 주춤했습니다.

물론, 당장 달러·원 환율이 급 반등할 상황은 아닙니다. 7월 이후 국내 자본 유출 압력(개인과 외국인 포함)이 크게 둔화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기업들의 달러 매물 영향력이 꽤 커졌습니다. 하지만 하락 모멘텀이 둔화되면서 달러·원 환율이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Key Chart

< 향후 5년, 美 기준금리 전망 경로 >



※ 시장 내재 가격 기준

서울 외환시장

(단위 : 원)

구분	달러/원	위안/원
시가	1,412.5	209.6
고가	1,419.0	210.1
저가	1,411.4	209.3
종가 ¹⁾	1,415.7	210.0
전일비	-0.2	0.1
평균환율	1,415.0	209.8
NDF(1M)	1,417.5	
거래량	163(억불)	212(억위안)

1) 서울외환시장 3시 30분 종가

주요 통화 환율

통화	환율	전일비
USD/KRW	1,417.00	3.60
JPY/KRW	889.50	3.65
EUR/KRW	1,634.40	5.57
GBP/KRW	1,913.89	7.77
AUD/KRW	1,001.63	5.14
CAD/KRW	1,017.35	3.91
USD/JPY	159.42	0.14
EUR/USD	1.1526	-0.0016

금리 장외파생상품 (원화)

(단위 : %)

만기	IRS	전일비	CRS ²⁾	전일비
1Y	3.448	-0.020	3.205	0.08
2Y	3.727	-0.015	3.335	0.00
3Y	3.841	-0.018	3.425	0.01
4Y	3.908	-0.020	3.485	0.02
5Y	3.963	-0.026	3.525	0.03
7Y	4.039	-0.012	3.570	0.03
10Y	4.107	-0.009	3.465	0.03

2) 3개월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3개월물과 교환되는 원화 고정금리

기준 금리 및 채권금리 (원화)

구분	종가	전일비
CD 91일물	2.94	+0.01
통안 1년	2.18	-0.01
통안 2년	3.67	-0.02
국고채 3년	3.78	-0.02
국고채 5년	4.02	-0.02
국고채 10년	4.29	-0.01
국고채선물(3년)	103.31	0.00

단기 FX Swap Point (원화)

(단위 : 전)

만기	SWAP Point	전일비	Implied CRS
1M	-65	10.00	3.10%
3M	-235	0.00	3.09%
6M	-580	10.00	3.09%
1Y	-1,150	20.00	3.23%

금리 장외파생상품 (미국)

(단위 : %)

만기	국채	전일비	IRS ³⁾	전일비
1Y	3.99	-0.045	4.01	-0.012
2Y	4.20	-0.040	4.06	-0.010
3Y	4.28	-0.032	4.07	-0.006
5Y	4.38	-0.030	4.11	-0.002
10Y	4.69	-0.014	4.29	0.008

3) 1년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1년물과 교환되는 달러 고정금리

주요 증시

증시	종가	전일비	
KOSPI	6,579.04	+233.51	+3.68%
미국 DOW	53,770.27	-21.58	-0.04%
중국 상해종합	3,946.68	+12.58	+0.32%
일본 NIKKEI 225	67,524.06	+553.84	+0.83%
영국 FTSE 100	10,833.15	-11.04	-0.10%

기타

종목	종가	전일비
WTI (선물)	83.27	+0.07
금 (선물)	4,408.90	+25.90
3M TERM SOFR	3.75	+0.01
3M EURIBOR	2.49	+0.02
KOR 5Y CDS	22.44	-0.22

· 본 자료는 자료 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고객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매매는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행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행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